



“함께 타는 시내버스? 그게 바로 저상버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인 20일 광주 북구 일곡동 교통문화연수원 앞에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광주시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농성이라도 해야 반짝 관심 장애인권리보장법 꼭 필요해요”

장애인의 날 만난 박경석 전장연 대표

희끗한 머리를 핑지머리로 질끈 묶고 컴퓨터 앞에서 장애인 인권 관련 진정서를 만들고 거리로 나가 장애인 복지 투쟁에 앞장서온지 어느새 13년째다. 장애인들의 투쟁현장에는 늘 그가 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의 박경석 대표(60)다.

올해 환갑을 맞는 박 대표는 하반신 마비장애 1급 장애인이기도 하다. 박 대표는 2007년 전장연이 만들어질 때부터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장애인들의 고용문제, 수화통역문제, 장애등급제 폐지같은 굵직한 현안들을 투쟁해 처리해왔다.

영남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박대표는 원래부터 장애인은 아니었다. 그는 중도장애인이자 175cm의 키에 건장한 체구였던 박 대표는 해병대 수색대에 지원해 특수부대에서 낙하산을 타고 하늘을 나는 일을 즐겼다. 그리고 24살, 1983년 그는 부암산 산중턱에서 추락하고 만다. 행글라이딩 사고였다.

선장이 되고 싶었던 그의 꿈은 5년 동안 꿈에서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을 아픔이 됐다. 하반신 마비. 다시는 걸을 수가 없었다. 한발짝이라도 가려면 휠체어 없이는 불가능한 삶이 24세에 찾아왔다.

그러던 그가 내상을 회복하던 1988년 서울의 한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고 그의 삶은 다시 변곡점을 타게 된다. 박 대표는 ‘뭐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컴퓨터 기술을 알려주고 취업 기회를 준다는 복지관에 찾아가 직업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장애인이 되어 바라본 세상. 믿을 수 없을 만큼 암흑 덩어리였다.

“알고보니 제대로 취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컴퓨터 다루는 일은 우리나라 비장애인이나 둘다 똑같이 일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아예 취업 기회 자체가 없었죠. 현실이 너무 비참했어요.”



그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만들어지던 순간을 똑똑히 기억한다. 선배들은 2년을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을 사상 최초로 제정되게 만들었다.

그는 1993년 노년장애인야학에 교사로 들어가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본격 시작했다. 2007년 전장연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대표로 있으며 장애인들의 고용문제, 혐오차별 대응, 기자회견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거투쟁 등 장애인들의 모든 투쟁의 ‘대부’가 되었다.

박 대표는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홍보도 하고 SNS도 하고 정책토론, 민원도 준비하지만 그 방식들만으로 오랫동안 쌓여온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장애인들의 문제는 전 인생에 대한 문제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농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총선이 끝난지 4일, 그리고 제39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여당과 정부에 이렇게 당부한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것만을 제대로 지켜줬으면 한다”며 “장애등급제 완전히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나 복지 서비스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12년 간 저상버스 도입률 제자리”

###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광주 지역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주장하며 일상 속 만연한 차별을 철폐해달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100여명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관계자 등은 20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동 교통문화연수원 앞에서 ‘함께 탑시다! 같이 갑시다!’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특히 교통약자의 시내버스 탈 권리를 주장하며 광주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광주시가 제3차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시내버스의 4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했지만 2020년 저상버

2021년까지 45% 계획 불구

21% 수준 그쳐 ‘서로 미루기’

광주시청 찾아오기 퍼포먼스

스 비율이 21% 수준에 그쳤다”며 “2008년부터 광주시장들이 약자를 위한 법을 등한시하고 서로 미루기에 급급해왔다”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 제정한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까지 시내버스 10대 중 3대(31.5%)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광태, 강은태, 윤장현, 이용섭 시장까지 광주시장이 바뀌는 12년 동안 여전히 저상버스 도입률은 21.6%에서 변함이 없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21년까지 45%인 450대 도입 계획을 수정, 2022년 이후 45%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장차연은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지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시내버스 탈 권리를 보장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지 않은 광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휠체어를 탄 장애인 16명은 각각 활동가 1~2명의 도움을 받아 일곡동 버스 종점에서 저상버스 5개 노선을 나눠 타는 ‘저상버스 타고 시청 찾아오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북구 일곡동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까지는 자가용으로는 20여분, 대중교통으로는 약 1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배차간격을 감수해야 한다. 환승을 하면 1시간30분에서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한 장애인은 “광주시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잘 이행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자유롭게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현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부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건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